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는 야전병원이었다”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 복장서
상이병사 있었다는 기록 발견
2년간 3000명 통도사 머물러
각 법당·암자들 피해도 엄청나
구전뿐이던 역사 입증할 자료
“내년에 순국선열 수목재 봉행”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3000명의 환자를 돌보는 야전병원 역할을 담당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됐다. 그동안 통도사에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통도사 야전병원 운영이 사실임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10월1일 경내 주지실 및 용화전 앞마당에서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소좌상 복장(腹藏) 유물 수습 기자회견담화’를 가졌다. 통도사는 이 자리에서 미륵불소좌상 복장 유물 가운데 1952년 용화전 미륵부처님을 새롭게 조성한 사실을 기록한 ‘용화전미륵존불경조성연기(龍華殿彌勒尊佛更造成緣記)’ 내용에 주목했다. 연기문에는 ‘한국전쟁 후 국군 상이병사 3000여명이 통도사에 들어와 1952년 4월12일 퇴거했다(佛紀二千九百七十七年庚寅六月二十五日事變後國軍傷兵三千餘名入寺하여 二九七九年壬辰四月十二日退去)’며 ‘각 법당과 암자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고, 용화전 미륵불이 심하게 파손되어(寺刹各法堂各寮舍各庵全部頹敗는不可形容中龍華殿彌勒佛은永爲破損損不可見餘) 자운율사와 월곡선사의 모연 아래 새롭게 조성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 어른 스님들과 구암 불자들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가 야전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구전으로는 전해왔지만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10월1일 용화전 복장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확한 기록이 없어 그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었다”며 “통도사정보박물관에서 기증 유물전이 진행 중인 올해 100세를 맞은 월재 김진조 의학박사 역시 야전병원 시절 통도사의 참담한 풍경을 밝혔”고 전했다.

통도사 측은 따르면 일부 언론의 자료를 통해서도 상이병 위문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통도사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당시 통도사 법당과 요사채는 물론 산내 암자까지 부상병으로 가득했다. 또 매일 10여명이 통도사 화장터에서 화장될 만큼 수많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병고와 싸우다 세연을 다 했음도 전했다.

통도사 측은 한국전쟁 때 야전병원뿐 아니라 불교계의 피난처 역할을 했음도 소개했다. 당시 통도사를 이끌었던 구하 스님은 전쟁을 피해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은 스님들을 받아들이며 무를 수 있도록 했으며, 미륵불상 연가문을 직접 작성해 전쟁으로 입은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는 것이다.

현문 스님은 “통도사 선대 스님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호국불교의 역할을 다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이라며 “다수의 불상과 경판, 문헌 등이 상당수 한국전쟁 시기에 훼손되는 등 한국전쟁의 비극이 사찰 내부에까지 펼쳐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문 스님은 특히 “이 같은 통도사의 역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내년에 통도사에서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수목재대를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도사는 최근 용화전 미륵부처님의 백색 호분채색이 오래돼 표면 균열이 진행되고 있고, 퇴색과 함께 좌대 하단부분 흠당이가 떨어져 나가 열화과정인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 개재불사 추진해왔다. 본격적인 불사에 앞서 통도사정보박물관(관장 승천 스님)이 사전조사를 기획해 김태중 전 경남대 교수,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의 입회 아래 불상 뒷면에서 복장물 공간을 발견하고 수습했다. 그 결과 1952년 한국전쟁 기간에 조성된 연가문과 함께 다리니 4점, ‘미륵상생경’ 1권 등이 종이로 감싸진 채 발견됐다. 통도사 용화전은 법당 내 조성된 미륵부처님보다 앞선 1725년 영조 원년 때 청성 스님에 의해 중건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돼 있다.

양산=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한 번만 돌려도 큰 공덕”...용문사 윤장대 국보 된다

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으로 예로부터 윤장대를 한 번 돌리면 경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이 더해져 불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인데,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 경전 보관 건축물이라는 데서 큰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관련기사 8면·사진=문화재청 >

예전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10월1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으로 예로부터 윤장대를 한 번 돌리면 경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이 더해져 불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인데,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 경전 보관 건축물이라는 데서 큰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관련기사 8면·사진=문화재청 >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위례 ‘야외천막결사’ 불자도 참여할 수 있다

상월선원 옆 천막법당 설치

불자들 기도·수행공간 활용

화엄사 석조여래좌상도 이운



휴일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수행을 진행함으로써 불자들도 야외천막결사 대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를 위해 상월선원 인근에 대형 천막법당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석조여래부처님을 11월초 이운해 법당에 봉안한다는 계획이다.

화엄사 석조여래좌상(사진)은 화강암으로 제작된 높이 2m(좌대 포함) 규모의 불상이다.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돋보이는 이 석불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이 석불은 용기민속박물관장에 소장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이영자 용기민속박물관장이 화엄사에 기증하면서 그곳 성보박물관에 봉안됐다. 화엄사는 한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야외천막결사가 원만히 화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

로운 신장문화 조성을 위해 석조여래부처님을 상월선원 인근 야외천막법당으로 이운하기로 결정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불자들이 야외천막결사에 참여하는 스님들과 함께 기도와 수행을 하는 것은 침체된 한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엄사 대중들도 동안거 결제기간 동안 야외천막결사 현장을 찾아 정진하면서 한국불교 변화의 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수좌 정목, 무연(동광), 성곡, 중앙종회의원 진각, 호산, 심우, 도림, 전 양평상원사 주지 재현 스님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부지에 천막법당을 설치하고 동안거 야외천막결사를 진행한다. 이들 스님은 동안거 해제 때까지 묵언하고, 하루 한 끼만을 공양하며 매일 14시간 좌선과 행선 등 혹독한 정진을 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2019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순례연수

원명 스님과 함께하는 파키스탄 순례 9일



“
붓다의 제자 나선비구를 만난 미란다왕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

총무원장스님 파키스탄 공식방문
마라난타스님 고향 - 공식행사 참석

교육일정 2019년 11월 16일(토) ~ 11월 24일(일) 8박9일 (음력 10월 20일 ~ 28일)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지도법사 원명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동참금 365만원
입금계좌 농협 301-0720-0111-71 예금주: 성산항공
구비서류 여권사본(출발일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야 함) 승려증 사본
주요지역 탁실라, 페샤와르, 라호르 등 간다라 불교유적지와 훈자 지역